

2021 경기도 청년연구 공모 결과보고서

경기도 다문화 청년의 진로·직업교육 실태조사

우리다(多) : 우리가 만드는 다문화 사회

연구책임 | 박종대

공동연구 | 전형, 이수경, 박가영, 유금, 정해성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청년연구공모사업 보고서는 청년들이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9 Fax : 070-8220-0200 E-mail : kimjm1785@ggwf.or.kr

요약

□ 연구목적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한국 거주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민,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으로 만19세~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다문화 담론의 주류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범주에서 이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도 2020년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소외된 청년 그룹이라 할 수 있다(김진희 외, 2021: 118). 청년 시기는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갖거나 가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년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실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주 지역을 살펴봤을 때, 다문화가정의 많은 구성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다문화 청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유의미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제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연구방법

본 팀은 총 인원 6명 중, 4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에 거주 또는 주요 활동지로 삼고 있는 다문화 청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을 살펴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다진 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했고, 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우수자들과 연구원

들이 참여하는 FGI를 다시 개최하여 결과를 공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 경기도 다문화 청년 정책을 제언했다.

□ 연구결과

이번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내 다문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검색 기능을 별도로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둘째, 경기도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커뮤니티 참여 또는 멘토 매칭을 위한 별도 누리집이나 전담 인력을 확보해줬으면 한다. 아울러, 다문화 멘토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이들은 비슷한 배경과 성장통 등을 겪었기에 성적, 진로·진학, 취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상담 및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년들에게 맞는 ‘맞춤형 안내’ 콘텐츠가 마련됐으면 한다.

넷째, 초·중등교육 기간 중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만들어주거나 주기적으로 진로·진학·직업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노력이 이뤄졌으면 한다.

경기도가 이러한 제언들을 잘 고려해준다면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다문화 청년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의 정책과 중복되는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고, 재능기부 형태의 방식도 적극 활용한다면 유의미할 것이다.

목차

I | 들어가며 / 79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93
- 2. 연구방법 795

II | 선행연구 및 정부 정책 / 797

- 1. 선행연구 797
- 2. 정부 정책 798

III | 연구 분석 및 연구결과 / 801

- 1. 분석개요 801
- 2. 다문화 청년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801
- 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807
- 4. 온라인 FGI 결과 분석 831
- 5. 전문가 자문결과 835

IV | 글을 마치며 / 839

| 참고문헌 / 841

표 차례

〈표 1〉 2021년 기준, 응답자의 만 나이	808
〈표 2〉 응답자 성별	808
〈표 3〉 국내출생, 중도입국 여부	808
〈표 4〉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은 무엇인가?	809
〈표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인지여부와 유입경로	810
〈표 6〉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인지여부와 유입경로	810
〈표 7〉 다누리 누리집 인지여부와 유입경로	811
〈표 8〉 가족센터 인지여부	812
〈표 9〉 본인이 알고 있는 다문화 정책, 캠페인, 기관	812
〈표 10〉 진로진학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	814
〈표 11〉 진로교육, 진로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814
〈표 12〉 진로, 진학, 직업 관련 정보 습득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된 요소	815
〈표 13〉 진로, 진학, 직업에 대해 고민할 때 부모님의 도움	816
〈표 14〉 선호하는 ‘진로’ 프로그램 질문	817
〈표 15〉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818
〈표 1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아르바이트 포함)	819
〈표 17〉 직업(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820
〈표 18〉 직업(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820
〈표 19〉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장점	821
〈표 20〉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가장 어려운 점	822
〈표 21〉 취업 전, ‘직업교육’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822
〈표 22〉 가장 필요한 직업교육 Top3	823
〈표 23〉 직업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	823
〈표 24〉 받고 싶은 직업교육	824
〈표 25〉 가장 관심 있는 분야	825
〈표 26〉 직업교육에서 다문화가정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할까요? 예시 중 2개 적기	825
〈표 27〉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을 찾고 갖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자유롭게 적기	826
〈표 28〉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교육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작성	827

〈표 29〉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을 찾고 갖는데 받은 도움	827
〈표 30〉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교육의 어려움	828
〈표 31〉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청년들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29
〈표 32〉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청년들의 기타 의견	829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한국 거주 다문화가족 및 구성원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으로 만19세~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간 다문화 담론의 주류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범주에서 이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도 2020년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소외된 청년 그룹이라 할 수 있다(김진희 외, 2021: 118)²⁷⁾. 청년 시기는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갖거나 가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청년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있는 통계자료 중, 18~24세 ‘직업훈련’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실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거나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주 지역을 살펴봤을 때, 다문화 가정의 많은 구성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다문화 청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유의미하다.²⁸⁾

그리고 만 18세 이상 다문화 2세대의 생애주기 관련 지원 서비스 수혜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직업훈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같

27) 김진희 외(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Vol.14, No.1.

28)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34p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다문화가구 분포가 2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20.4%)이다.

은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과 동일하게 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관련정보를 수집하기에는 개인적 차이 &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다문화 2세대의 취업률은 전체의 18.6%로 우리나라 전체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취업률(26.2%)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청년 일반의 1/3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로 다문화 2세대의 경제활동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²⁹⁾ 이런 조사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청년들이 진로·진학·취업 등에 갖고 있는 니즈를 조사하여 통계화하고, 적용 가능한 다문화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자 삶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는 다문화, 비다문화를 떠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청년으로서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기억이 있고 정체성 형성 등에 있어서 비다문화 청년들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보다 세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에 맞춰 본고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진로·직업교육 실태조사를 혼합연구(질적연구-FGI, 다문화 전문가 자문, 양적연구-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연구팀원 모두가 다문화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돼 있다.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경기도 다문화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다문화가족, 다문화 청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한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 다문화 청년층이 다양한 직업군에 포함돼 사회로 활기차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년 정책제언을 통해 정책 입안 공직자, 입법기관 종사자들이 보다 객관적인 통계치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문화 청년들이 전반적인 산업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연구결과가 잘 공유된다면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여러 직업군으로 유입돼 ‘사회통합’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9)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p.602,621,623,626,627.

2. 연구방법

경기도에 거주 또는 주요 활동지로 삼고 있는 다문화 청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방식으로 조사했다.

먼저, 선행연구와 정부 정책을 살펴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다진 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설문문항은 다양한 참고문헌과 학술논문을, 기타 자료를 활용했다.³⁰⁾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설문 문항을 설계한 후, 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대상자는 다문화청년 커뮤니티, 경기도에 속해 있는 가족센터, 연구자 지인 등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우수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FGI를 다시 개최하여 결과를 공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온라인 피드백을 받았다. 한 차례의 FGI와 설문조사, 전문가 피드백 등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서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30) 참고한 문헌, 학술논문, 기타 자료는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1. 천정웅 외(2012), 『다문화 청소년활동론』, 도서출판 신정.
2. James A. Banks, 방명애 외(2014),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시그마프레스.
3. Christine I. Bennett, 김옥순 외(2011),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참고 학술논문>

1. 김진희 외(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Vol.14.
2. 김진희 외(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3. 유진영 외(2019), 「독일의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 정책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2권.

<기타 자료>

1.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II 선행연구 및 정부 정책

1. 선행연구

매년 ‘다문화’ 또는 ‘결혼이민자’, ‘다문화 청소년’을 키워드로 한 학술논문이나 학위 논문은 다수 발표되고 있다. 그만큼 다문화에 대한 연구자 및 사회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문화 청년’을 핵심 소재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윤형준(2019)³¹⁾에서는 다문화 2세대인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필요한 지원정책 및 발전방향을 탐색했다. 그 결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기술 교육과 더불어 직무태도, 성실성 등 사회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소양교육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좋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급 기술훈련과 심화 직무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진희 외(2021)³²⁾에서는 다문화 2세대인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지원 방향을 탐색했다. 청년들의 질적 분석을 통해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생활 경험은 좁은 사회관계망 등으로 인해 막연한 학습활동과 진로 준비에 머무는 제한적 학습생활에 그치고 있고,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구조적 경계와 장벽 속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교육 요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장 욕구와 진로설계에 초점을 두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문화 2세대인 ‘다문화 청년’ 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꽤 다층적이고 복잡했다. 비다문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애주기

31) 윤형준(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21』, 제10권 6호

32) 김진희 외(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학습사회』, 제17권 제2호

에서 나타난 각종 공백, 장벽 등이 사회 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었다. 즉,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

2. 정부 정책

정부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주는 각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대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중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상위의 법률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시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특별시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에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립 근거도 이 법에 마련돼 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이 법에 명시돼 있다.³³⁾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금까지 실시된 많은 정책들의 표본이자 근간이 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청년’ 과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문화 청년세대의 비율 증가와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 등을 적극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법률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참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회의체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각종 정책, 다문화와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문화가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³⁴⁾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2018년 3월에 발표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은 2022년까지 적용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사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고,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물론, 한계점과 향후과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초기 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기 정착화로 인한 다양한 가족유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영, 유아, 아동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의 성장에도 역량을 쏟아야 한다. 다문화수용성 또한 개별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했던 부분(캠페인, 교육 등)에서 법, 제도 등 정착을 통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³⁵⁾

□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2021년)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5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를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2020년 196개소에서 2021년 203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교육제도 안내 책자인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및 다문화학생 대상 온라인 학습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로 했으며, ‘이중언어인재DB’ 등록을 유도하여 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이중언어인재DB는 1,211명이 등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참조

35)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참조

록돼 있다.(2020년 기준) 특히,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레인보우스쿨(25개소)을 한국어 특화형, 진학준비형, 진로특화형으로 세분화하여 정책단계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³⁶⁾ 다만, 청년과 관련된 항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 다문화가족 포용대책(2020년)

2020년 12월 11일,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이들의 정착을 돕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립됐다. 이주배경인구가 2020년 222만 명에서 2040년에는 352만 명, 총 인구의 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한부모가족, 1인 귀화자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령기 자녀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 사업의 문화,인종 관련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진로, 진학지도를 지원하여 격차를 완화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력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제공키로 했다.³⁷⁾ 그렇지만, 청년들을 위한 진로, 진학지도, 나아가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 소결

위와 같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위시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자세 또한 요구된다. 물론, 여러 다문화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영/유아/아동 중심의 교육 축이 청소년 쪽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아직 다문화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다문화 청년에 대한 고민이나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다문화 청년에 대한 정책은 이전 시기(아동, 청소년 등) 정책들과 동떨어져있지 않다. 이들이 성장하여 청년 세대가 되는 것이기에, 상급학교 또는 취업/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36) 여성가족부(20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참조

37) 관계부처합동(2020),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조

Ⅲ 연구 분석 및 연구결과

1. 분석개요

본고에서는 경기도 청년들의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실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총 2번의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앞서 진행된 FGI를 통해 경기도 거주 다문화 청년들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 내용은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에 일부 반영됐다. 두 번의 FGI 사이에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두 번째 FGI는 온라인 설문조사 우수자들에게 설문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면 등으로 받아 연구자들과 온라인 회의 시스템(ZOOM)으로 논의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결과 확인 및 피드백을 위해 전문가(다문화교육 교수, 경기도청 다문화팀 실무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

2. 다문화 청년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분석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전, 다문화가정 청년 4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이 중 1명은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원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인터뷰이 인구학적 특성 >

이름	연령	거주 지역	소속	국내/중도입국 여부
이민정	만 21세	경기 의정부	순천향대학교	국내거주
김승민	만 21세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국내거주
서민호	만 22세	경기 의정부	인하대학교	국내거주
이수경	만 23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국내거주

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품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인터뷰 중, 유의미한 부분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진행자 : 거주하는 지역에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건 혹시 알고 있나요?

서민호 : 중/고등학교 때 센터에서 체험을 해봤어요.

이수경 :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센터는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결혼이주여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김승민 : 센터가 있는 건 아는데 거길 이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고 먼저 연락이 오지도 않으니깐 이제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는 곳도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이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학습과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³⁸⁾

이렇듯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FGI에서는 특정 연령이나 구성원들에 집중된 프로그램(한국어 수업,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돼 다문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았다. 나아가 가족센터에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많지 않고, 청년들도 센터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잊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진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고 하니 내실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38)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2021.10.1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참고

진행자 : 진로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세요.

이민정 : 고등학교 때 진로과목을 거의 다 모든 학생이 들었거든요. 진로과목을 듣거나 그 진로 과목 안에서 진로적성검사 사이트를 소개해준다거나 MBTI같은 걸 검사해서 맞는 유형의 직업군 소개, 아니면 진로체험의 날을 열어 학교 내에서 전문가들이나 그 직업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들은 경험은 있어요.

서민호 : 저는 대학교에서 해주는 외부 초청강사? 세미나? 이런 것만 들어봤어요.

진행자 :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군요.

일 동 : 네.

뒤쪽에서 살펴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이뤄지고 있다. 횡수 등 양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 시수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거나 대규모 및 빠른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유형검사들을 적용하게 된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입각한 진로상담이나 교육은 입시 위주로 움직이는 일선 학교에서 바라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다문화배경 학생들의 상황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 다문화배경 학생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입시교육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을 것이라 본다.

진행자 : 저희가 저번에 사전 질문지를 드렸죠. 이걸 보면서 ‘어? 이런 것도 있었네? 미리 알았으면 나도 해봤을걸.’ 이랬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김승민 : 여성가족부의 ‘다누리’ 라는 홈페이지를 이번 기회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이트가 잘 짜여 있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체험정보라던지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행자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정보였거든요. 다누리는요.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이수경 :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가 중요한 게 어렸을 때도 제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걸 연계시켜준다거나, 다문화가정 학생들

을 따로 모아 멘토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사실 접하기 어렵거든요.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 있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민정 : 다문화센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잠깐 일을 하셔서 엄마 따라 간 기억밖에 없고, 제가 크고 나서는 거기를 직접 찾아간다거나 홈페이지를 찾아본다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정부나 지자체가 다문화 관련 정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다문화 관련 부서가 있다. 다문화 통합서비스 ‘다누리’ 와 전국 곳곳에 가족센터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수요자들에게 이런 정책과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뒤의 온라인 FGI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인데, ‘있는 정책과 정보만 제대로 알려져도’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진행자 :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을까요?

일 동 : 네.

진행자 :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나요?

김승민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문화, 비다문화 차이를 두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도 입국한 자녀들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은 좀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출생하고 자란 아이들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외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이점만 있다면 있지 나머지는 비슷해서 굳이 그렇게 크게 차이를 뒤야 하는지 의문이에요.

이수경 : 딱딱하고 형식적인 직업교육보다는 인턴십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교육만 하게 되면 교육이 길어지거나 내가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단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면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민호 : 저는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역차별’ 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취업 분야는 다문화, 비다문화 청년들을 막론하고 모든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난관이자 도전과도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의 차이를 두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역차별’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다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마주쳐야 하는 개념일 것이다. 어떤 관점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다문화 관련 정책을 역차별이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나아가되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특기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역차별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턴십과 금전적인 도움 또한 청년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된다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와 같이 대규모로 공신력 있게 진행되는 결과를 가지고 경제적인 수준 차이를 제시한다면 좀 더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자 : 대부분의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외국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의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자녀의 교육정보 등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민 :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다문화학생 가정 부모님 중 한 분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 학부모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얻는 게 솔직히 좀 느려요. 저도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 대학교 입시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다보니 수시전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정보교류가 빠르고 일반적인 한국인 부모님이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긴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부모님께서는 대입정보를 좀 더 제공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수경 :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부모님들께서 정보에 완전 관심이 있거나, 완전 관심이 없거나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바쁘시기도 하고 학교 부모님 커뮤니티에는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민정 : 확실히 다문화가정의 부모님들은 다문화가정의 부모들과 만나거나, 같은 국적의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이수경 : 저는 다문화 청년이랑 부모님들까지 같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입시 등 정보의 습득에 있어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은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는 한국어 실력을 모국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어울리는 차

원을 넘어,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교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난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게는 입시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알려주거나, 학부모 커뮤니티가 있다면 학교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매칭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외국 출신 부모들을 위한 입시, 진로, 진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다.

진행자 : 만약, 다문화 청년들과 비다문화 청년들에게 직업훈련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민정 : 언어적인 요소를 지원해주고, 집에서는 부모님과 지내고 밖에서는 다른 문화, 두 가지 문화가 있으니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경 : 여러 가지의 직업군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 주위의 다문화 친구들을 보면 거의 사회복지사, 교사, 일반적인 직업들이 많은데요. 중학교 때부터나 그 때쯤 여러 직업군을 소개하면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호 :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의 직업과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국어 공부를 했었고요. 넓은 직업군 같은 것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정 :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문화 청년들의 강점은 엄마(아빠)나라의 언어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년들의 장점이다. 그러나 실제 이중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다. 이 부분이 잘 개발되고 관련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기회나 직업군을 소개하는 자리가 주어진다면 이들의 직업 만족도나 자존감, 삶의 질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소결**

경기도 다문화 청년들과 진행한 FGI에서는 ‘가족센터’가 청년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센터 내 프로그램들 또한 사회 적응과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진로/직업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

는 양적인,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다문화 관련 정책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및 안내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돼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 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기와 재능을 좀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거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나오는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수준 차이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면 좀 더 타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부모교육 및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다문화 청년들의 강점인 언어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및 직군이 잘 안내된다면 이들의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3.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구글 폼’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진로/진학, 직업교육에 대한 견해를 다각도로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했다. 단,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된 활동지역(직장, 학교 등)이 경기도면 설문에 응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귀화자 등 청년 연령의 다문화 구성원이면 누구나 설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모든 가족센터에 협조공문과 함께 참여 대상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연구팀원 및 가족, 지인들이 알고 있는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개략적인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설문 기간 : 2021.9.8~2021.9.23.
- 전체 참여 인원 : 84명 중 유효 인원 **79명**
- 유효하지 않은 인원 5명 : 만 12세(1명), 만 36세(2명), 만 46세(1명), 미응답(1명)

설문 카테고리는 총 6분야였고, ‘기본 인적사항 9문항, 정책 인지여부 조사 8문항, ‘진로’ 분야 조사1 : 4문항, ‘진로’ 분야 조사2 : 5문항, ‘직업교육’ 분야 조사 : 12문항, 종합질문 3문항’ 으로 합계 41문항(휴대전화번호 작성 문항 제외)이다.³⁹⁾

3-1. 기본 인적사항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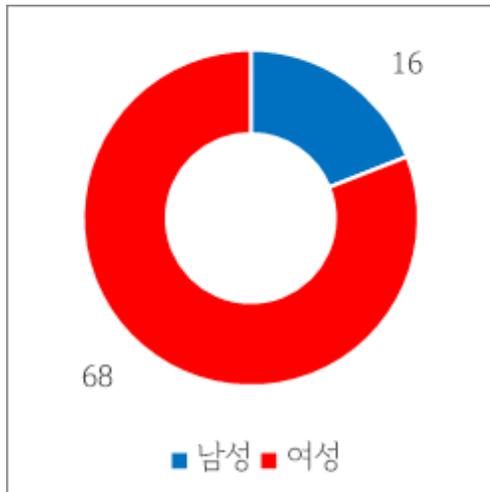
<표 1> 2021년 기준, 응답자의 만 나이

유효 인원	만19~만22세	만23세~만26세	만27세~만30세	만31세~만34세
79명	28명	23명	18명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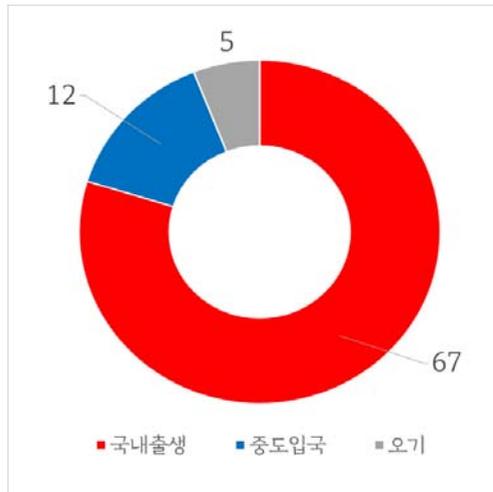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84명 중 유효하지 않은 인원 5명 : 만 12세(1명), 만 36세(2명), 만 46세(1명), 미응답(1명)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기 성남, 수원, 용인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천, 하남, 화성, 의정부, 파주, 평택, 광주 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표 2>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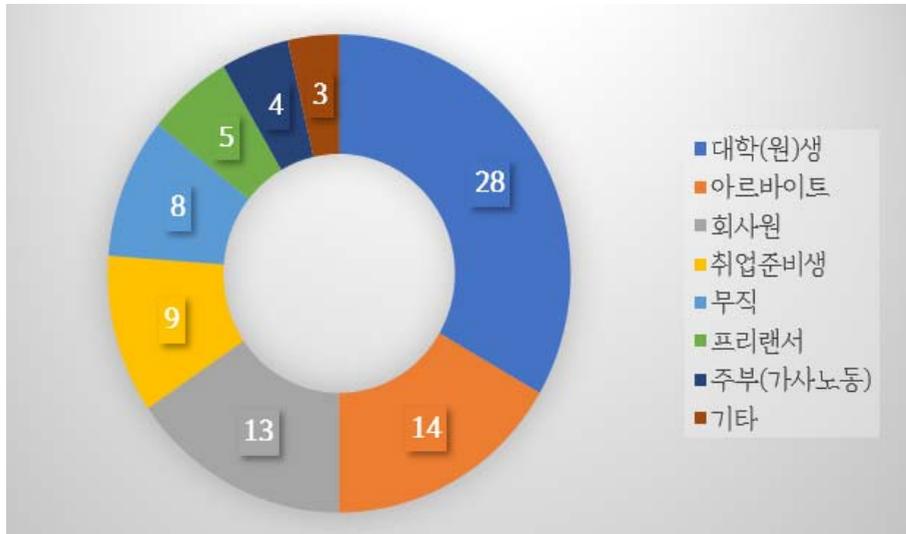


<표 3> 국내출생, 중도입국 여부



39) 실제 설문조사 문항 별첨.

<표 4> 현재 하고 있는 일(직업)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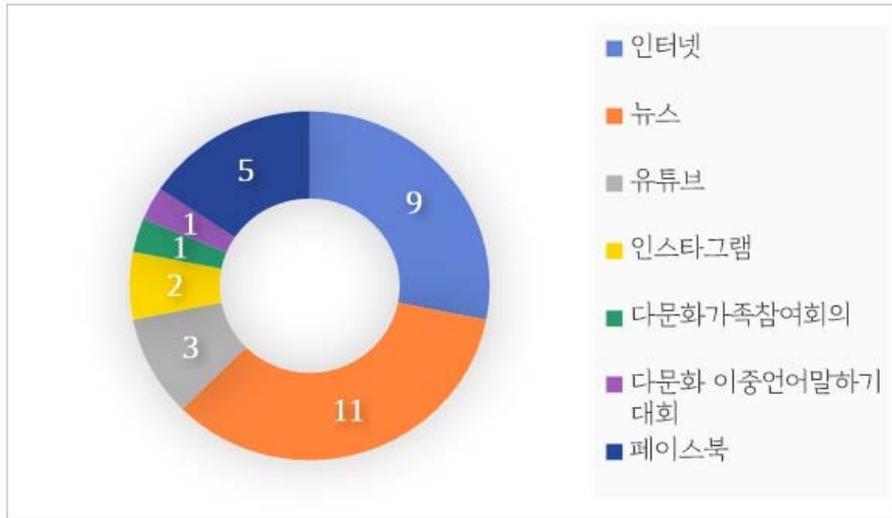


대학(원)생이 28명(전체의 33.3%)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14명(전체의 16.7%), 회사원 13명(전체의 15.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질문으로 어떤 업종(직종)에서 일하는지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청년 나이대 범위가 넓어 여러 업종이 조사됐다.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강사, 택배, 일반사무, 카페, 반도체, 교육, 패션, 판매, 납품, 백화점, 행정보조, 건설, 코스메틱, 기술직, 디자인, 주류, 서빙, 요식업, 교사 등으로 다양했고 취업준비생, 주부 등도 포함돼 있었다.

3-2. 정책 인지여부 조사 응답 결과

다음으로, ‘정책 인지여부 조사’ 카테고리에서 어떤 설문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았다. 사실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FGI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이들의 유입이 활발하고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에 집중 홍보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표 5〉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인지여부와 유입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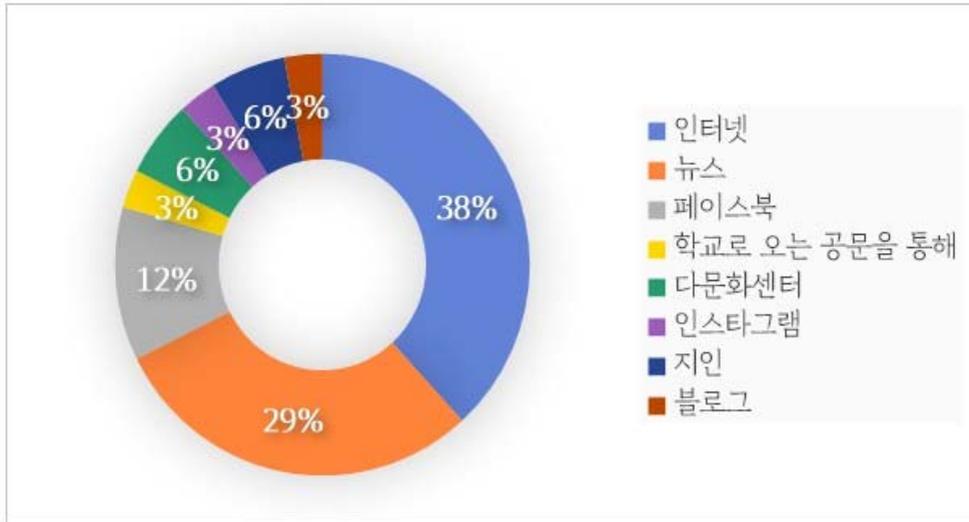
먼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34.5%의 응답자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65.5%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이 있다면 유입경로가 어땠는지’ 물어본 응답에는 뉴스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28%), 유튜브(9%), 인스타그램(6%) 순이었다.

〈표 6〉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인지여부와 유입경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진행하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인지여부’ 를 묻는 질문에는 41.7%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58.3%는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유입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41%가 인터넷, 31%가 뉴스, 13%가 페이스북이라고 응답하여 앞선 질문 응답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표 7> 다누리 누리집 인지여부와 유입경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누리’ 누리집(홈페이지) 인지여부’ 에 대한 질문에는 4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해 앞선 두 질문의 인지여부 응답보다 응답률이 약간 높았다. 유입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40%가 인터넷, 30%가 뉴스, 12%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위의 두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거주 다문화 청년들은 SNS 채널 중 주로 ‘페이스북’ 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여러 정책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가족센터 인지여부



다음으로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본고에서 밝힌 바 있듯이, 2021년 11월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4%, 과반이 넘는 인원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선 세 질문과 달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9> 본인이 알고 있는 다문화 정책, 캠페인, 기관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 축제 이벤트
외국인상담센터	다문화 협동조합
동행복지재단 다문화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한마음스쿨

이밖에 알고 있는 정책, 캠페인, 기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만큼 민간, 시민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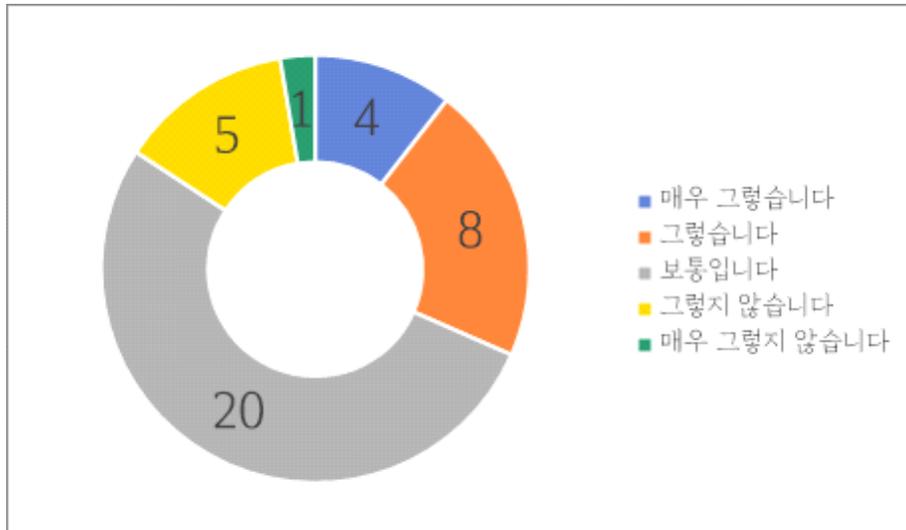
위의 ‘정책인지 여부 조사’ 문항의 답변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뉴스, 인터넷, SNS(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해당 정책을 알았으므로 이 경로에 대한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센터’와 ‘다누리’에 비해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낮은 것은 다문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녹아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조사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대규모 조사이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만큼 어찌하면 다문화 청년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

3-3. 진로교육 설문 결과

다음으로 진로교육 설문 결과를 살펴보겠다. 진로교육을 받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의 반복교육이거나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이론 위주로 진행된 점이 아쉽다. 특히, 도움을 받은 요소에서 친구와 인터넷이 높게 나오는 점으로 볼 때, 실제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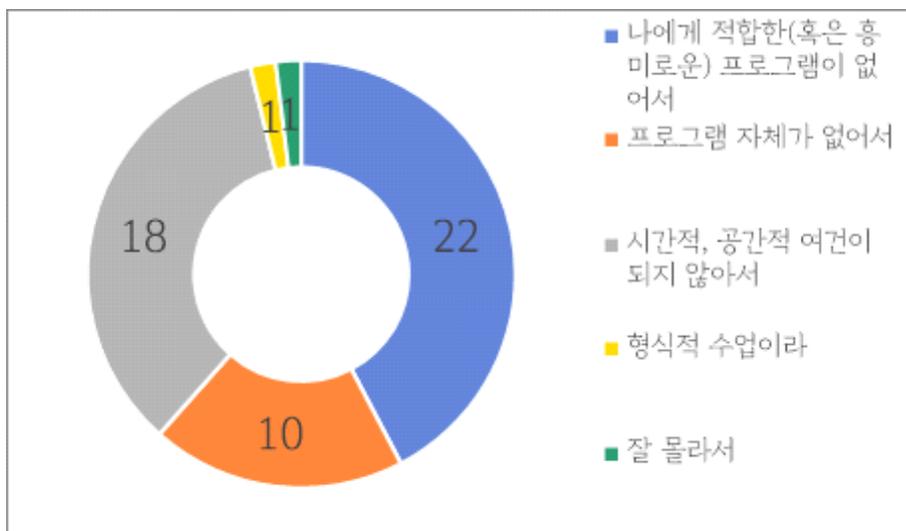
먼저,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진로교육 또는 진로체험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은 54명, 65%의 인원이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경험을 한 35%의 인원은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된 특강 위주의 진로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취업박람회 참여, 대학 내 비교과 프로그램 수행 등으로 응답했다.

<표 10> 진로진학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52.6%)’ 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설문자들은 이 교육이 특출나게 영향을 주거나, 전혀 영향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진로교육, 진로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진로교육, 진로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34.6%)로 나타났다. 이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적합하거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진로교육을 받을 여유가 아예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지도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공간적 여유 부족으로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12〉 진로, 진학, 직업 관련 정보 습득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된 요소



‘본인은 진로/진학/직업 관련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된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친구(지인), 인터넷 검색, 학교, 부모님(가족), 다문화 관련 센터(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협조나 협동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취업준비는 구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⁴⁰⁾

40) 조운서, 강순희(2015), 「긍정심리자본, 조직풍토, 수행직무특성, 조직유효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123-153.

〈표 13〉 진로, 진학, 직업에 대해 고민할 때 부모님의 도움



‘위의 과정에서 부모님께서서는 진로/진학/직업을 고민할 때, 어떤 도움을 주었나?’ 라는 질문에는 과반수의 부모는 진로 및 진학, 직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결혼이민자 외국인 부 혹은 모는 언어적인 장벽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마저 취약해 진로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도 논의할 창구가 없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축적되는 것으로 경제적 자본처럼 많이 축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변화하여 풍요롭게 될 수 있다.⁴¹⁾ 즉 다문화 청년의 진로/진학/직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좁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정범석, 정화민(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3(4), 1-19.

<표 14> 선호하는 '진로' 프로그램 질문⁴²⁾

어떤 '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까요?



실습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이요!

다문화 전형을 중점으로 한 진학상담이요!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는 직업체험이요!

어떤 진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학생이 '기업실습 또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희망했으며, 진학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전형을 중점으로 한 대학입시 컨설팅을 희망했다. 언어의 장벽으로 진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처음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이미 많은 연구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⁴³⁾ 청년층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찾아가게 된다.⁴⁴⁾ 청년들에게 첫 일자리는 경제적인 자립과 독립의 기반으로써 본인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첫 일자리를 적합하게 잘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직무 스트레

42) 서술형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

43) 정도범(2018),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비교」, 『노동정책연구』, 18(4), 105-130.

44) 김은비(2018), 「퇴사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의 재취업 실패과정에 대한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13.3, 77-107.

스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이후 재취업 준비와 잦은 이직 또는 실업을 겪게 될 수 있다.⁴⁵⁾ 또한, 본인의 적극적인 취업의지와 다양한 인턴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이 좋은 첫 일자리 진입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⁶⁾

<표 15>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⁴⁷⁾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대부분의 반응



"다름 없었어요..."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정보가 부족했어요.

다문화나 외모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진로 고민을 부모님에게 상담할 수 없어 힘들었어요.

45) 유현옥, 김은비(2016). 「2-3 년제 대졸 청년의 직업가치 유형과 첫 일자리 만족도 및 이직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5(5), 127-147.

46) 심재휘, 김경근(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1(1), 113-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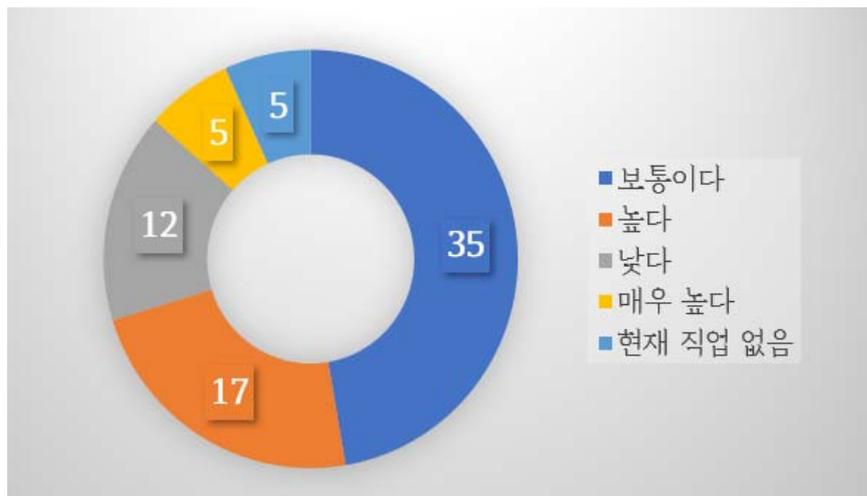
47) 서술형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는 질문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대부분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움의 부재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담임 선생님과 교수님과 같은 교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는 질문에는 ‘정보의 부족’과 ‘다문화’ 또는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것’ 등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진로교육 및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직업탐색이론에서는 구직자가 직업선택에 있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검색이나 탐색이 필요하다”⁴⁸⁾고 하였다.

다음으로 ‘직업교육 분야’ 카테고리에 대한 설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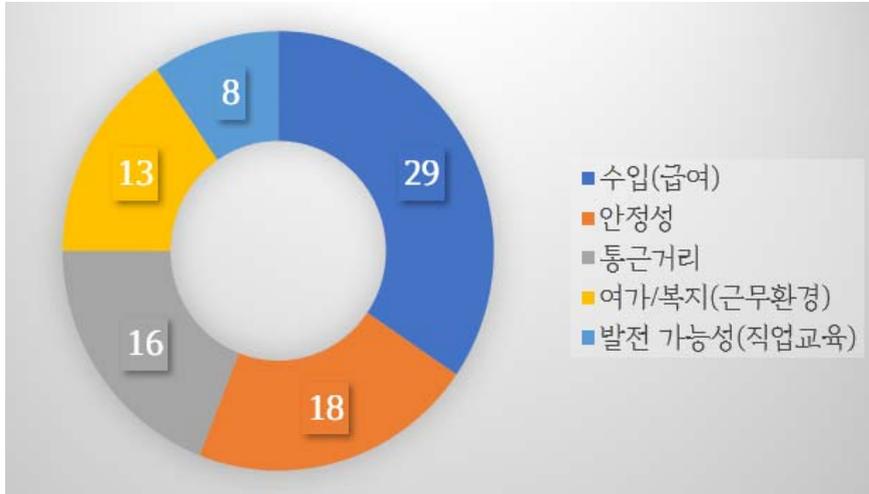
<표 1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아르바이트 포함)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아르바이트 포함)’ 라고 물었더니 현재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다문화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14.3%의 청년들은 본인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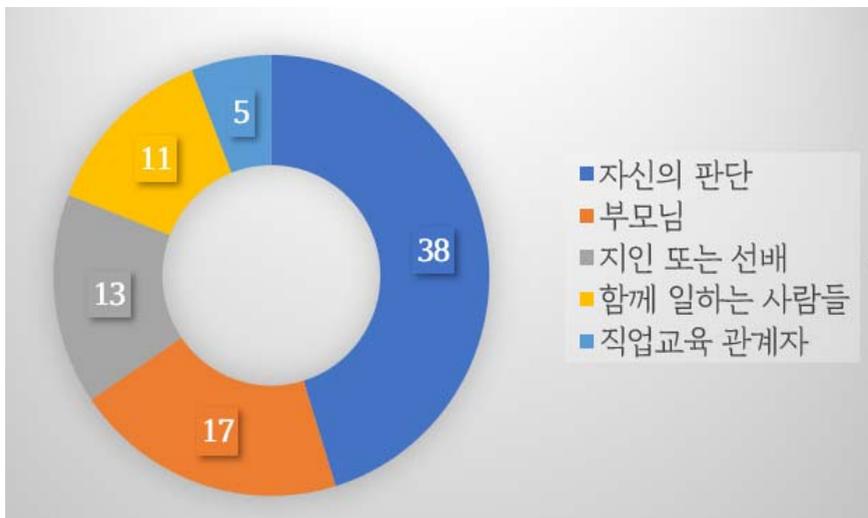
48) Hammermash, D. and Rees, A.(1987).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New York, Harper and Row.

<표 17> 직업(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직업(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직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입(34.5%)’ 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안정성, 세 번째는 여가 및 복지 등의 근무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다문화 청년들이 정기적인 수입 및 근무환경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8> 직업(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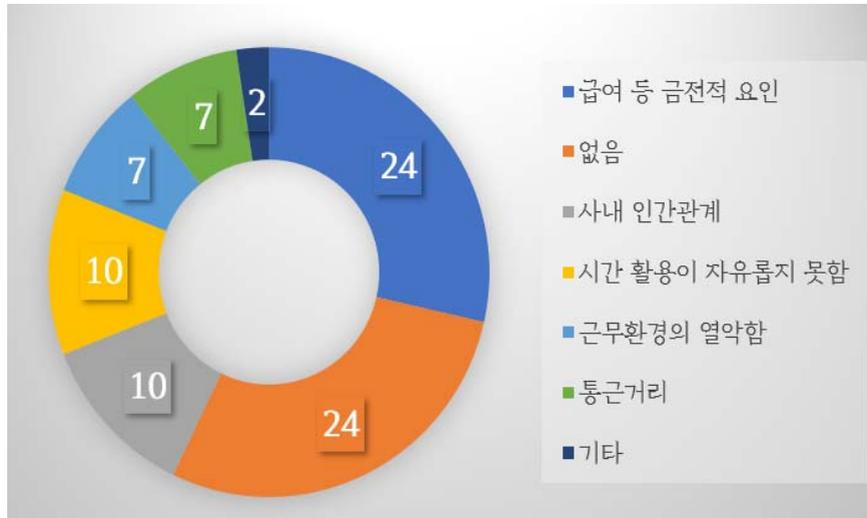
다음으로 ‘직업(일)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위와 같은 질문이지만 문항을 다르게 한 질문에는 ‘자신의 판단(가치관)’ 이 44%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부모님, 지인 또는 선배의 영향도 약 35%에 달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청년들은 FGI에서 자신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한 바 있다. 다문화 청년들은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 중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적거나 없기에 진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표 19>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장점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의 가장 큰 장점을 하나 골라 달라’ 라는 질문에는 급여 등 금전적 요인과 시간 활용의 자유로움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요소들은 수입과 근무환경인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없음’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약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의 가장 어려운 점



위의 질문과 달리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의 가장 어려운 점을 하나 골라 달라’ 라는 정반대의 질문에는 급여 등 금전적 요인을 택한 청년들이 28%에 달했다. 이는 다문화 청년들이 현재의 일터에서 수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의외로 ‘없음’ 을 택한 청년들도 28%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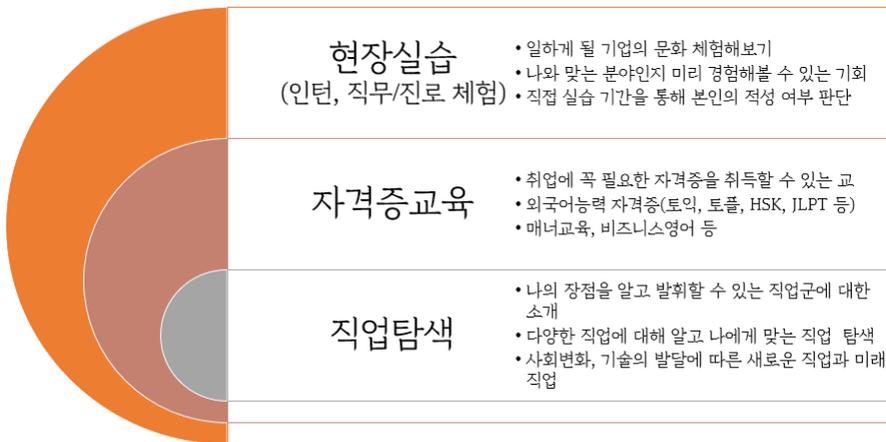
<표 21> 취업 전, ‘직업교육’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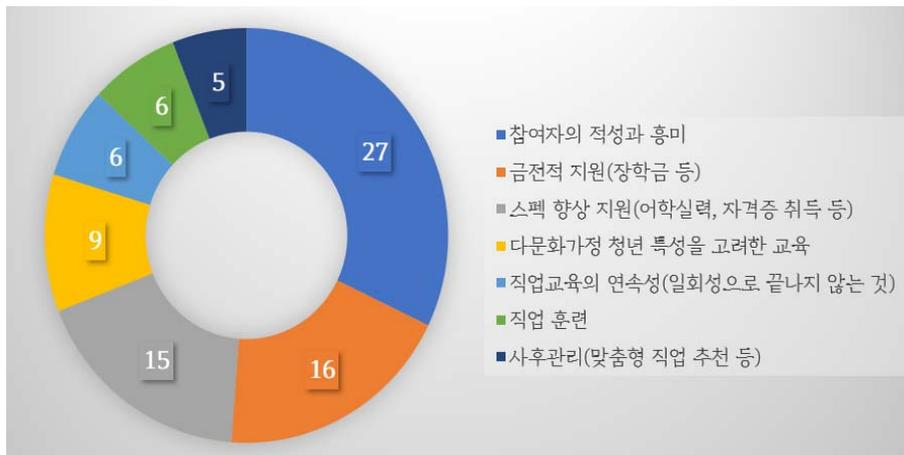
‘취업 전, ‘직업교육’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7%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 전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년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라는 서술형 질문에는 인턴, 직무 체험, 진로 체험 등의 현장실습과 자격증 교육, 직업탐색 분야로 답변을 묶어볼 수 있었다. 답변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가장 필요한 직업교육 Top3



<표 23> 직업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



‘직업교육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적성과 흥미 등 성향에 맞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금전적, 실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직업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다문화 청년 맞춤형 교육’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에게 맞는 직업교육을 찾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이런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더 나아가 멘티(학생)가 다시 다문화 멘토가 되는 선순환적인 교육 또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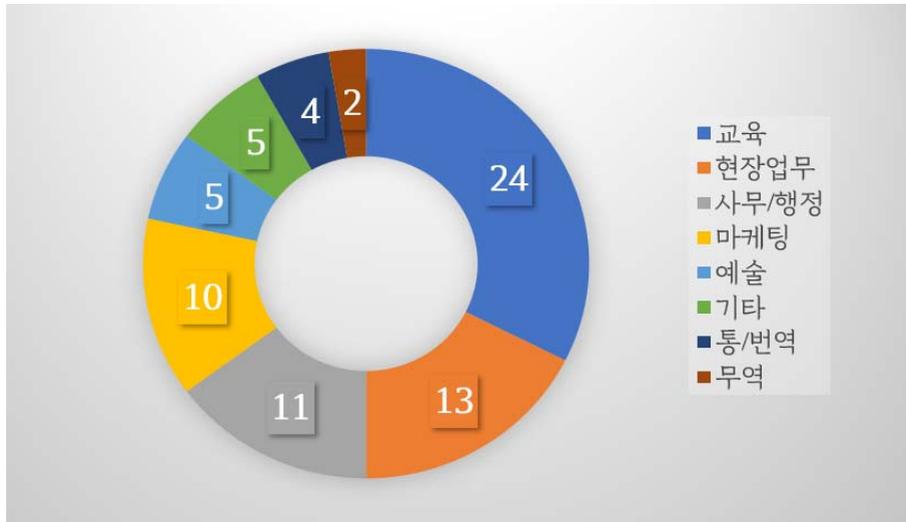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서술형 문항을 많이 배치했다. 그 이유는 다문화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였다. 아무래도 객관식 문항으로는 획일화된 결과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라는 서술형 질문에는 청년들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적어줬다.

<표 24> 받고 싶은 직업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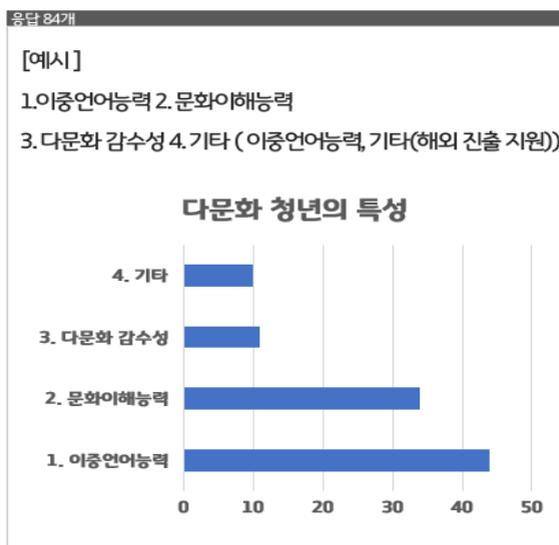
- 참가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나와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확실히 정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했고, 타 대학생들도 전공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 직업체험보다는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다만 모든 직업군에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학과의 특성을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기업의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 또한, 서로의 이중언어를 기초부터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다문화가정이라도 완벽하게 이중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교육지도의 기회를 제공해도 좋겠다.
- 노인 도우미, 간호나 사무보조, 회계 교육을 받고 싶다. 노령인구가 많은 한국 사회에는 이런 직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민자도 한국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 이중언어를 활용해 국내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교육
-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뭘지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표 25> 가장 관심 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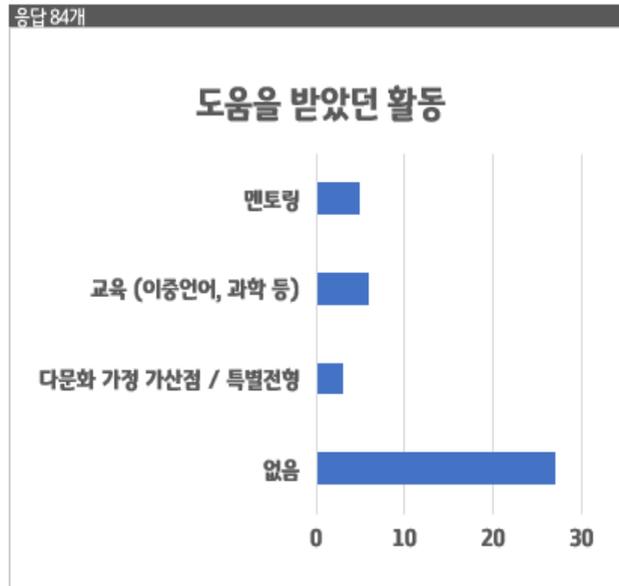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문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직업에서 다문화 청년으로서의 장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직업교육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표 26> 직업교육에서 다문화가정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할까요? 예시 중 2개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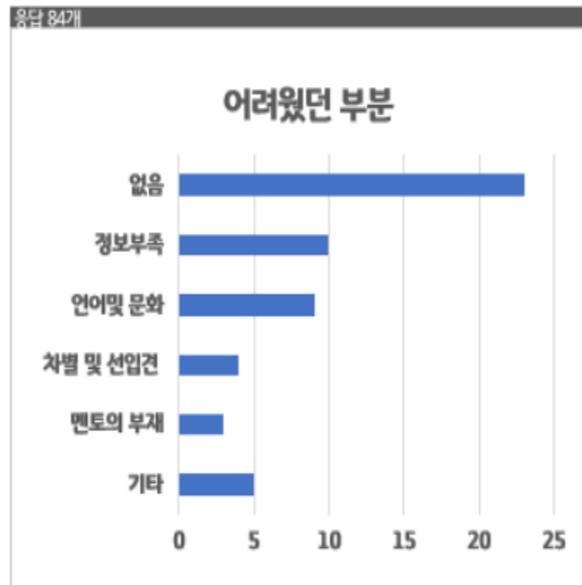
‘직업교육에서 다문화가정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아래 예시 중 2개만 적어 달라’ 라는 문항에는 이중언어능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문화이해능력이었다.

<표 27>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을 찾고 갖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자유롭게 적기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을 찾고 갖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라는 서술형 문항에는 다문화 청년의 진로 및 직업을 찾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다문화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명확히 도움을 받았고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응답한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이는 다문화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적절한 도움이나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8>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교육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작성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교육’ 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라는 질문에는 다문화 청년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대부분 정보가 없거나 같이 고민하고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다문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함께 찾아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멘토’ 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을 찾고 갖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적어줬다.

<표 29>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을 찾고 갖는데 받은 도움

- 채용 공고에 뜨는 이중언어능력자 우대사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가끔 있는 다문화가정 가산점을 주는 기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 다문화라서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 부모님께 조언, 격려, 위로 듣기

다문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가산점 부여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그 후로는 언어능력이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최대 장점은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 도움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보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의 수가 많았다. 부모님이나 친척 등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조차 받지 못하고 혼자 한국 사회의 제도 속에서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는 다문화 청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교육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적어 달라’ 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작성해 주었다.

<표 30>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직업교육의 어려움

- 다문화가정 청년이기에 어려웠던 점은 아니지만,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어공부 혹은 학교 공부(국영수 과목)를 하는 데 있어 학원을 다닌다거나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게 아쉬움이 남는다. 추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할 때 부모님의 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등록번호가 인식되지 않아 가입을 못한 적이 많았다.
- 부모님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구가 부족
- 차가운 시선
- 많지 않은 교육처
- 핸디캡을 안고 가야 하는 것. 비다문화 학생과 경쟁에 있어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 주변에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고민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나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표 31>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청년들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설문을 마무리하며 지자체(경기도)가 다문화가정 청년의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위해 어떤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해 달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청년들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현 모든 청년들의 고민인 일자리·진로교육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비다문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다문화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금전적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인식개선’을 신경써줬으면 한다는 비율도 15.5%로 조사됐다.

<표 32>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청년들의 기타 의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진로교육을 상담하는 전문 직원이 없다.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여전히 외모로 차별받는 경우가 있고, 특히 한국보다 경제적 GDP가 낮은 국가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는 ‘못살 것 같다. 노동자’ 라는 인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 다문화 청년이라고 낙인부터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인 것 같다. 지원도 좋지만 인식 개선 후, 직업교육이나 인턴십 등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적성 찾기와 현실적인 취업 단계 안내 및 정보공유 그리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소결

직업 교육 파트와 경기도에게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본 결과, 다문화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직업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필요한 교육은 ‘현장실습, 자격증 등의 시험 지원, 다양한 직업 소개 및 탐색’ 이었다. 나이대별로 필요한 직업 교육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기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직업을 정하지 않았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다문화 청년으로서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주고, 함께 진로를 고민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필요하다. 취업을 한 다문화 청년들은 자신이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이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었기에 다문화 청년이라는 사회적 위치 속에서 자신만의 직업을 찾느라 힘들었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직무에 일하지 대략적인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관련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본인이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할 때 드는 학원비, 시험 응시료 등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각자 상황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얻을 수 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서로 응원해주는 동료들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취업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혼자 준비해야 한다’ 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문화 청년 공동체’ 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며 응원하는, 더 나아가 취업 이후에도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수요가 높았던 현장실습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직무를 찾고, 준비하며 더욱 좋은 스펙이 될 수 있는 것은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참가자도 자신이 이 직무와 잘 맞는지 알 수 있고 또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르기에 현장 실습을 해보았던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장실습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는 학생들을 바로 채용하여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다문화 청년들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

는 분야에서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면, 청년들에게도 기업들에게도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년들은 성장하면서 ‘다문화 가정’ 혹은 ‘이주가정’ 이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다음 세대 다문화 청소년들을 도와줄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 많은 잠재력을 품고 있는 존재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형성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 중요해진 시대에 다문화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겪는 다문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정착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에게 바라는 점’ 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자리·진로교육이 3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 정도로 직업교육에 대한 이들의 갈망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은 다문화 청년들이 사회로 발돋움 할 때 가장 필요한 교육이다. 다문화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 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며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4. 온라인 FGI 결과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 종료 후, 설문 응답자 중에서 추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 전체 6명의 청년을 선정하였고,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진행하였다. 그 중 2명의 다문화청년 인터뷰이의 소감을 그대로 옮겼다.

바수데비⁴⁹⁾씨의 소감

첫 번째 소결에 담긴 내용에 공감한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존재가 다문화 청년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들과 맞닿아 있기에 더 많은 다문화 청년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이 존재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지역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의 명단을 관리하여 수신을 동의한 가정에 한하

49) 바수데비(만 25세), 초등학교 교사/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

여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 좋겠다.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효과적이겠지만 위의 방법 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센터에서 모든 명단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이든 신청하는 사람에게 연락망 등록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소식을 전달하면 좋을 것이다.

진로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매우 많은데, 진로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의무로 시수가 많이 배정되어 있기에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100% 받았을 것이다. 다만 비교적 진로에 관심이 없는 시기(초등학교 시절 등)에 교육을 받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듯하다. 진로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이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면, 진로교육보다 중요한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 진로교육에 따로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중요한 일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수능공부나 자격증 공부 등 다른 분야의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시간적 여유 부족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공간적 여유 부족도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 진로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나 체험의 경우 이미 마련된 장소에 청년들이 가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공간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을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 (간단히 말하면, 응답자 입장에서 '시간·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문항을 택했을 때는 아마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의 의미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진로진학 관련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 요소 문항에서 부모님이 16%밖에 나오지 않은 것에 놀랐다. 나의 경우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기에 상당 부분 어머니와 상의를 하였고, 내 주변 비이주배경 가족의 친구들도 다 부모님과 가장 많이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입시요강 등 세부사항은 선생님과 결정하였지만). 따라서 같은 문항을 비이주배경 가정 청년들에게 조사한다면 부모님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주로 양육을 맡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진로진학 결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이 점은 지원이 필요함이 명백해 보인다. 진로진학·직업 관련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된 요소에 대한 문항과 부모님의 도움 종류에 대한 문항을 비이주배경 가정 청년들에게 똑같이 조사한 뒤 결과를 비교한다면 다문화이기에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판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설문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게 다문화가정 청년이라 그럴까, 청년이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일까 하는 부분들이 종종 보였다. 똑 같은 설문을 비이주배경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비교한다면 다문화요인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필요한 직업교육을 조사한 문항에서 나온 응답은 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직업탐색 교육을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이중 언어 등의 특기를 살린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멘티가 다시 다문화 멘토가 되는 선순환적인 교육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 중 자신의 다문화가정으로서의 특징을 장점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적으로 부족했던 요인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멘토가 된다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수데비 씨는 설문 결과에 대해 유의미한 조언들을 다수 제시해 주었다. 가족센터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신청자' 관점이 아닌 직접 제공해주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이기에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비이주배경(비다문화) 청년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면 더 유의미했을 것이라는 코멘트에도 공감한다.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비다문화 청년들의 통계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장원진⁵⁰⁾씨의 소감

어렸을 때 막연하게 우리 집은 조금 다르구나 생각했다.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작은 차이가 혐오가 되고 선입견을 가진 채로 보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성장하면서 다문화 정책 지원도 받았고 다양한 다문화 친구들도 얻는 등 좋은 경험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하지도 않던 다문화 교육이라 큰 도움은 없었다. 한국의 문화와 예절, 모국어 말하기 대회 등 일반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하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나는 학교에 얼마 없는 다문화 학생이라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유년기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모국의 문화를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문화 교육보단 직업 교육이나 진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왜냐하면 이중언어를 잘하고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다문화 청년들은 모국의 언어나 문화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된 직업이 아닌 이상 인생에 있어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고, 스스로 배우고 정보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큰 어려움인 것 같다. 설문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과반수 이상의 부모는 진로 및 진학, 직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많다.

50) 장원진(만 22세), 대학생.

그러나 언어적인 장벽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도 좁다. 특히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방식이 다르고 담임 선생님의 소통이 쉽지 않아 유년기엔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게 된다. 뒤쳐진 차이는 극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부모의 지원이 아닌 직접 벌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진로를 찾아야 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서 다른 다문화 청년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 다문화에 대한 주제나 정책, 지원과 같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다. 덕분에 색다른 경험을 했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좋았다. 사회에 나온 후로는 다문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앞으로도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 나 또한 다음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것이며,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면 든든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다.

장원진 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일련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로나 난이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어렵기에 맞춤형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자신이 다문화가정 청년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짐까지도 언급해 주었다.

위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 FGI를 통해 여러 진전된 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부하거나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잘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꼭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다문화 청년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진로/진학 또는 직업정보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다문화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과정을 가장 잘 아는 같은 배경의 대학생, 직장인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1:1 또는 1:多 로 멘토링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다문화 청년들은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고, 다문화 구성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직업 정보까지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찾아보면 참 많은데, 일회성으로만 시행되거나 부각되지 않는 정책들이 많다. 기존의 정책들이 제대로만 작동돼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넷째,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독자적이면서도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잘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5. 전문가 자문결과

본 팀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및 FGI 논의내용 등의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전문가 자문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한귀연 주무관⁵¹⁾

본 실태조사는 다문화청년들의 애로사항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다문화청년 대상 사업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는 한발 더 나아가 다문화 청년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본인들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및 지원사업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문화청년 지원사업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다.

우선, 정책의 홍보 뿐 아니라 현장 즉, 다문화사업 위탁기관끼리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탁기관 담당자들 및 사업담당자들의 정보교류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지원사업 담당자로서 기존 다문화 지원사업을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 사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년 FGI(초점집단인터뷰)에서 센터를 통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 위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년들이 활용할 여지가 적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청년 대상 사업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이 있다. 시·군은 다양한 센터 및 교육기관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글로벌청소년센터 등의 기관들을 통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 대상은 9세~24세 청소년으로, 본 실태조사에서 인터뷰를 시행한 4명의 다문화가정 청년들 모두가 사업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마련해놓았지만, 현장을 찾아가 적극적인 실수요자에게조차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

51) 한귀연 주무관,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지원팀.

기 위하여, 다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위탁기관끼리의 정기적인 정보교류가 사업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하다.

두 번째로, 다문화청년의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혹은 다문화청년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면 청년들 스스로 인지한 강점과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다문화청년들의 적극성을 활용하여 주된 어려움인 '정보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신의 판단이 44%, 부모님, 지인 또는 선배의 영향이 35%이다. 성년이 된 청년들의 진로 지원에 있어서 부모교육보다는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설문조사 우수자 인터뷰를 진행한 2명 모두 '멘티가 다시 멘토가 되는 선순환적 교육', '나 또한 다음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것'이라며 다문화청년 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이 있다. 주 사업대상이 결혼이민자라는 점에서 다문화청년들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청년들에게 기회와 지원이 열려있다. 다문화청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정책, 청년 정책, 다문화 정책 등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년들이 본인들의 기량을 나타내며 한국사회에 보다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지혜 교수⁵²⁾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구성원 중에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청년들에 주목한 연구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소외/배제되는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른 관심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 그 사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수정과 적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혼합연구로 진행하였는데, 특히 질적조사(사례연구)를 통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돋보인다. 사례연구는 집단에 속해 있던 개개인에 주목하는 것으로 개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설정하여 심층적으로 이해, 검토, 분석,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례와 관련된 맥락과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사례

52) 박지혜 교수,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학과.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례를 특징짓는 주요 요인들 간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사례가 소속된 계층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도 유용하다. 특히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다문화 청년’은 복잡한 변수로 이루어진 대상들이므로 보통 명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대상인데, 그들에 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묘사를 통해 이해과 통찰의 폭을 확장시키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물론 사례연구는 연구자의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고 연구자의 해석에 있어 신뢰도가 타당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례로부터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연구진이나 연구 과정은 그 우려를 자체적으로 해소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 정책 제언을 한 내용은 다문화 청년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낸 목소리에 지자체가 귀를 기울인다면 다문화 청년은 더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문화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오소정 연구원⁵³⁾

이 글은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연구였다.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 던져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다만,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새겨진 다름과 차별에 대해 주저하기 위해 그에 대한 논의는 절실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사회에서 논의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읽어보고 되짚어보는 동시에, 실제 당사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어볼 수 있는 연구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경기도에 분포되어있는 상황에 맞춰 지역에 초점지어 세밀한 연구를 진행했음에 더 관심을 표하는 바이다.

다문화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시간만큼 소속된 당사자의 시간도 흘렀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에서의 청소년 및 청년담론을 고려해야할 때임을 절실히 인식하게 됐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 논의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논의와 다문화 가정의 청년이 달리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우리사회에 소외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 역시 느꼈다.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하고 있는 소속된 세대의 고민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음에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

연구분석에 기술된 초점집단인터뷰를 예로 살펴보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특정 연령(미취학 아동/어린이)이나 구성원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여타 세대의 활용이 제한적임을 드러낸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극히 미

53) 오소정 책임연구원,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비함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 대상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역차별에 대한 논의도 언급했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및 청년만을 대상으로 특별 정책을 지원한다면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 필요한 보살핌은 다른 맥락이다. 부모님 세대의 언어차이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청소년기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의 취약함이 드러난다.

다문화가정 부모님이 대학입시와 관련 지원 사례에 관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그들 자녀의 오늘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소년기에 발달시킬 수 있는 이중언어와 문화 이해에 대한 이점을 극대화하여 이후시기에 직업적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도 필요하다. 언어적 차이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취합된다. 이를 반대로 이해해보자면, 인터넷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중요한 또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미디어는 공유의 편리함에 전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것에 소외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야 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상호작용적 실천 간의 일련의 복잡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은 이런 실천 혹은 관계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천과 그것들의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사회라는 커다란 이데올로기 속에 살고 있다.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독립적으로 생활해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 안에 적절히 잘 녹아들었을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위치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 담론이 우리 사회에 대두된 이후로 더디지만 성실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다. 맹점은 늘 존재한다. 한국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집단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이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일 테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한국사회에 계속 이어져야 할 주제이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청년은 역차별이라는 선긋기에 주저함을 느낄 수 있다. 필요한 도움과 차별이라는 잣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외의 사람, 들레 지어진 소속 외부가 갖는 인식의 차이를 바꾸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가 진행하는 정책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외부 대상자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길 기대해본다.

IV 글을 마치며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법률에 의거한 여러 유용한 정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청년층(만19세-만34세)으로 성장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청소년 위주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시기는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많은 구성원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번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경기도의 다문화 청년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가 경기도 다문화 청년의 진로·직업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내 다문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검색 기능을 별도로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경기청년포털’ 누리집을 보면 ‘맞춤정책찾기’ 코너가 있는데, 이런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율적이면서도 빠르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 다문화 청년들의 다문화 커뮤니티 참여 또는 멘토 매칭을 위한 별도 누리집이나 전담 인력을 확보해줬으면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년 연구원들이 제안했던 부분으로, 다문화 커뮤니티가 온·오프라인에 형성된다면 청년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고 나름의 여론을 형성하여 다문화인식 및 정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멘토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이들은 비슷한 배경과 성장통 등을 겪었기에 성적, 진로·진학, 취업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상담 및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다문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진로·진학, 직

업 선택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참가 공고를 내고 참여하는 멘토들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년들에게 맞는 ‘맞춤형 안내’ 콘텐츠가 마련됐으면 한다. 다문화 청년들은 이중언어 잠재력, 문화수용성, 이타성 등이 뛰어나다. 그렇지만 일선 대학교, 취업 공간 등에서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에게 제공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안내되기 때문에 엄마(아빠)나라 출신 국가의 언어능력이 출중하다면 그 언어 또는 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직종을 안내해준다거나, 다문화 청년으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직업(직종, 직군)안내가 잘 이뤄진다면 다문화 청년들이 좀 더 넓은 사고와 시야를 지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초·중등교육 기간 중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만들어주거나 주기적으로 진로·진학·직업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노력이 이뤄졌으면 한다. 한국어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강사 또는 도우미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자조모임은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구성으로 시작하여 여기에 교사 또는 도우미(다문화이해교육강사) 여러 안내 및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적응 후 비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모임에 융합되는 형식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제언들을 잘 고려해준다면 ‘**다문화정책을 선도하는 광역자치단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다문화 청년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의 정책과 중복되는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고, 재능기부 형태의 방식도 적극 활용한다면 유의미할 것이다.

한편, 비다문화 청년들을 설문 또는 FGI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한 부분, 코로나19로 대면 인터뷰나 회의를 제한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좀 더 예산이나 시간적인 요소들이 잘 확보된다면 이번 연구의 아쉬웠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추가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20),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 김은비(2018), 「퇴사경험이 있는 대졸 청년의 재취업 실패과정에 대한 연구」, 『역량개발학습연구』, 13.3.
- 김진희 외(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희 외(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Vol.14, No.1.
- 김진희 외(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학습사회』, 제17권 제2호.
- 심재희, 김경근(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1(1).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2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2021.10.1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제 “가족센터”로 불러주세요’.
- 유진영 외(2019), 「독일의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 정책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2권.
- 유현옥, 김은비(2016). 「2-3 년제 대졸 청년의 직업가치 유형과 첫 일자리 만족도 및 이직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5(5).
- 윤형준(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21』, 제10권 6호.
- 정도범(2018),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도의 관계: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비교」, 『노동정책연구』, 18(4).

- 정범석, 정화민(2014),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 연구』, 33(4).
- 조윤서, 강순희(2015), 「긍정심리자본, 조직풍토, 수행직무특성, 조직유효성의 구조적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8(3).
- 천정웅 외(2012), 『다문화 청소년활동론』, 도서출판 신정.
- Christine I. Bennett, 김옥순 외(2011),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Hammermash, D. and Rees, A.(1987).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New York, Harper and Row.
- James A. Banks, 방명애 외(2014), 『다문화교육의 세계동향』, 시그마프레스.

【 미주 】

- 1) The World Economic Forum (2020. 5). COVID-19 Risks Outlook
- 2) COVID:What do we know about global youth unemployment; BBC World News에서 ILO Stastics 재인용 (2021. 6)
- 3) 뉴스웍스(2021), 잡코리아 조사, 기업 51.2%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할 것
- 4) 한국경제(2020), 세계가 놀란 온라인 개학, 환자 추적 첨단 IT 인프라 힘이였다; 그림 재인용
- 5) 인턴수기: <https://blog.naver.com/chuhee97/222204900912> (2021.1)
- 6) 인턴수기: blog.naver.com/jenybom/222409855951 (2021.6), blog.naver.com/jjh437/222410344450 (2021.6)
- 7) 인턴수기: blog.naver.com/min_mimi_/222393329601(2021.6), blog.naver.com/jaey0430/222188310059(2020.12)
- 8) 파이낸셜뉴스(2021), 대형로펌 인턴십도 '비대면' 대세. 유튜브로 노하우 전수도 연합뉴스(2020), LG전자 디자인 신입사원 채용... '온라인 인턴십' 첫 도입, 엘지 in TV (2020), [읽어주는 채용공고]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신입사원 채용
- 9) 인턴수기: <https://blog.naver.com/ppgmlduscjst/222435408862>
- 10) 임종미, 김신향, 백민자, 김경화(2021),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도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족도 미치는 영향
- 11) Global Experience, 참가자 후기 www.globalexperiences.com/blog/virtual-internship-reviews
- 12) World Economic Forum(2021) Global Risk Report p. 41
- 13) 같은 보고서 p. 42
- 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LH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블로그 후기 종합
- 15) Gooversea(2021),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Virtual Internships?
- 16) Global internships(2021), How Interns Can Make The Most Of A Remote Internship; "Take pride in your work and it will show".
- 17) Caplital placement, Online Internships Pros and Cons; "Miscommunication"
- 18) Pew research center(2020), How the Coronavirus Outbreak Has - and Hasn't - Changed the Way Americans Work; Four-in ten adults working from home all or most of the time say they have more flexibility to choose their hours now than before the coronavirus outbreak.
- 19) CNBC(2020), Remote workers suffer from loneliness and isolationism as the pandemic in the U.S. drags on
- 20) Adam Hickman, Gallup(2019), How to manage the Loneliness and Isolation of Remmote Workers
- 21) SHRM (2020), Some companies are making virtual internships work doring COVID-19
- 22) 임종미, 김신향, 백민자, 김경화(2021), 대학생의 학습몰입, 자기주도학습, 학습성도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만족도 미치는 영향